이타심은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보살핌의 인문학

달라이 라마 등 지음· 이창신 옮김

현대사회는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사회다. 그러다보니 경쟁에서 낙오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경쟁이 심할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가치 또한 중요하다. 어떤이들은 이를 '보살핌'이라고 한다. 연민과 연계되는 보살핌은 약자를 아우르고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달라이 라마와 세계 최고 지성 19인이 모여 '힘'과 '보살핌'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뇌과학, 심리학, 생태학, 인류학, 경제학 등 최고 지성들이 나눈 희망의 대화가 '보살핌의 인문학'으로 출간됐다. 책은 '마음과 삶 연구소'가 도덕적 책임과 연민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콘퍼런스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들 대화의 핵심은 '보살핌의 가치'에 있다. 대화의 주제는 흥미로우면서도 다채롭다. 예를 들면 이렇다. '공감과 위로 능력이 탁월한 침팬지가 어떻게 우두머리가 되는가', '보살핌 노동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 '예술은 어떻게 인간을 보살피는가' 등이다.

무엇보다 보살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연민'과 '공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공감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감정 상태를 느끼는 것이지만 지나친 감정이입은 '감정 고통'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그에 반해 '연민'은 타인을 염려하고 사랑하되,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연민의 상태에서 발현되는 행위가 보살핌이며, 타인을 보살피고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는 이들이 알아야 하는 특성이다.

"인간이든 침팬지든, 우두머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독재자와 좋은 지도자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위로를 잘합니다. 제 연구에서 그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두머리는 암수를 통틀어 위로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 세계의 우두머리는 가장 힘이 센 개체가 우두머리가 된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작은 수컷이 무리를 지배하기도 한다. 동물행동학자 프란스 드 발 박사 연구에 따르면 우두머리 첫 번째 조건은 이렇다. 무리를 보살피고 침팬지들 간 싸움을 중재하며 고통받는 동료를 위로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이를 '분쟁 조정과 위로의 달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인간은 타인에게 아기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인류학자 세라 블래퍼 허디 박사에 따르면 침팬지 어미는 출산 후 여러 달 동안 새끼를 품에서 놓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아기를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안도록 허락하기도 하고 부탁한다.

2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생활한 호모 에렉투스를 묘사한 그림. 엄마가 아기를 대행 엄마인 아기의 손위 형제에게 건네고 있다. 〈김영사 제공〉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은 '타인의 도움'이 아기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보살핌을 받으면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능력이 높아지고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협력하는가.

"연민과 자애를 포함한 보살핌이라는 동기에서 보면 사람들은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아도 이익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이타심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경제학자 데니스 스노우 박사는 '보살핌의 경제학'을 제시한다. 인간은 힘과 보살핌 뿐 아니라 많은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특히 인간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토대로 선택을 하는데 그로 인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지속적인 정신 훈련은 이타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주요 종교의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다. 혹여 종교가 사회적 갈등과 연계돼 있다면 종교 체제나 전통을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영사·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논어' 지혜로 포장해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지 말자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

김영민 지음

아마도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 중에는 화제가 됐던 저자의 칼럼 '추석이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이가 많을 터다. 명절에 대해 색다른 시선을 제시한 칼럼은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뒤 이어 출간 된 첫 산문집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영민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이번에는 고전 '논어'를 이야기한다. 신작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논어 에세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이번 저작은 저자가 구상중인 '논어 프로젝트'의 출발이다. 그는 앞으로 기존 논어 번역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논어 번역 비평', 논어 각 구절의 의미를 자세히 탐구하는 '논어 해설', '논어 번역 비평'과 '논어 해설'에 기초해 대안적인 논어 번역을 제시하는 '논어 새 번역' 등 모두 3권의 관련 저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사상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브린모어대 교수를 지낸 그는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비교 정치사상사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위트를 타고 삶의 미시와 거시 사이를 활강하는 글쓰기"라는 평을 받고, 저자 스스로 "유쾌하면서도 심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한다"고 말하는 저자의 글은 독창적인 질문과 사고로 독자들을 몰입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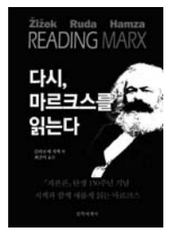
첫글 '생각의 시체를 묻으러 왔다'에서 보듯, 저자는 '논어' 등 고전을 '살아있는 지혜'로 포장해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는 세태를 경계하며 자신만의 '논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책은 '침묵의 함성을 들어라', '실패를 예감하며 실패로 전진하기', '회전하는 세계의 고요한 중심점에서', '성급한 혐오와 애호를 넘어'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공자의 제자나 '논어'의 편집자가 실패한 공자의 모습을 사랑한 데 주목하고, '논어'가 서로 다른 인간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해 던지는 질문들에 눈을 돌린다. 그는 공자를 "경청동지할 혜안을 가진 고독한 천재가 아니라 자신이 마주한 당대의 문제와 고투한 지성인이었고, 국가가 설정한 위계적인 구획을 넘어, 친족 네트워크를 넘어 타인과 비전을 함께 하는 공동체의 카리스마 넘치는 스승"이었다고 말한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논어'를 현대사회의 느닷없는 해결책으로 숭배하지 말기를, 서구중심주의의 대안으로 설정하지 말기를, 동아시아가 가진 모든 폐단의 근원으로 간주하지 말기"를 제안한다. 그가 바라는 건 "'논어'를 매개로 해서 텍스트를 공들여 읽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다. 〈사회평론·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경성의 주택지=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주택비 개발 열풍이 불었을까. 이 책은 이런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주택지 개발 주체의 개발 배경과 개발로 인한 원주민과 갈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던 건축가들의 다양한 실험과 시공업체의 노력, 유행을 따라 실험적으로 자신의 집을 지어봤던 건축주들의 소감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집·2만3000원〉

▲다시, 마르크스를 읽는다=슬라보예 지젝을 비롯한 프랑크 루다, 아곤 함자 세 명의 철학자들은 마르크스를 소환, 마르크스를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읽어낸다. 마르크스의 세계관과 현재의 정치 현장을 비교하면서 저자들은 마르크스 사상의 현재 관련성과 가치를 설명한다.

〈문학세계사·1만6000원〉

▲여기까지 인용하세요=200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시인 김승일의 두번째 시집이다. 시집에서는 성별·연령·국적 등이 다양한 화자들이 등장해 '있을지 없을지 모를' 시공간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다. 시인은 입력된 규칙대로 행동하지만 그 규칙의 목적이 무엇인지 규칙을 입력한 사람조차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기계를 시의 화자로 등장시켜 기계들의 규칙이 어떤 알레고리를 만들어내는지 지켜본다. 〈문학과지성사·9000원〉

▲여전히 휘둘리는 당신에게=박진영 작가의 첫 책 '눈치 보는 나, 착각하는 너'가 전면개정판으로 돌아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새롭게 발견된 연구들을 추가하고 박 작가 특유의 쉽고 공감 가는 사례, 유쾌하고 시원시원한 글쓰기를 만나볼 수 있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책에서 유용한 심리학 지식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문학과시공사·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여기는 어때?=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예절 관한 이야기다. 아름다운 숲속에 사는 여러 동물 친구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갈등 문제를 다룬다. 아이들이 층간소음을 비롯한 공동생활 예절에 대해 알고,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한울림어린이·1만3000원〉

▲우리 가족에겐 비밀이 있어요=용우네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용우 혼자 물도 잘 마실 수 있는데 빨대 달린 컵과 기저귀가 등장한다. 용우네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와 가족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할머니를 지켜내는 이야기를 담았다.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전한다.

〈머스트비·1만800원〉

▲똑똑한 동물원=이 책은 아이들을 똑똑한 동물원으로 초대한다. 갈라파고스 황소거북, 아프리카여우, 호저, 얼룩말, 기린, 오카피, 코끼리 등 친숙한 동물들은 물론 낯선 동물들 400여 마리를 담았다. 동물들을 '더운 곳에 산다', '추운 곳에 산다', '뿔이 달렸다', '사막에 산다', '바다에 산다', 그리고 '까맣고 하얗다' 등으로 분류해 동물의 이름과 모습뿐 아니라 특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바람의아이들·2만5000원〉